

녹색철도연구원, 2012년 신입직원 교육 실시

— 현장·실습 중심의 직무교육으로 신규직원 실무적응 능력 향상 —

녹색철도연구원 인재개발실은 6월 1일부터 15일까지 2012년 신규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신입사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직무능력 함양과 조직 적응에 초점을 두었다.

총 2주간에 걸친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임원진 특강을 비롯하여 전 업무과정 직무교육, 현장체험, 팀 빌딩 활동 및 교양 교육이 실시되었다.

그동안 신입직원 교육은 외부 위탁업체에 의뢰하여 운영하던 방식에서 처음으로 사내강사진을 활용한 자체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교육생들에게는 체험학습 중심의 다양한 직무내용을 익혀 현장·현업 실무에 쉽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사내강사 및 교육담당부서는 우수한 교육생들에게 각종 지식을 전달하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는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인재개발실이 직접 준비한 극기훈련 과정은 교육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정으로 손꼽혀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짧은 일정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촉박한 준비일정에도 아낌없이 지원해 준 교육 운영진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무더운 날씨에도 긍정적으로 전 과정을 무사히 이수한 신규직원 모두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표하며, 금번 교육이 공단 발전에 디딤돌이 될 신입직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철도연구원 장원혁 기자)



대전 역세권 소외계층 '사랑의 음식나눔' 참여

— '은총섬김회'와 음식나눔 사회공헌 파트너십 협약 체결 —



기획혁신본부와 건설본부는 6월 20일 본사에서 대전역세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음식나눔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은총섬김회'와 사회공헌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기 위한 파트너십 협약을 맺었다.

이날 사회공헌 파트너십 협약식에는 김영우 기획혁신본부장과 김영국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사회공헌 담당자와 사회복지단체 은총섬김회 석선희 원장목사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년 6월부터 연말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점심 음식나눔 활동에 연인원 160여명의 봉사인력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약속하고, 복지단체에서 시행중인 역세권 독거노인이나 간병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사업 등에 후원비 지원도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김영우 본부장은 "대전 역세권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 활동을 통하여 나눔의

뜻을 되새기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공단의 사회공헌 6대 실행전략 추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석선희 원장목사는 "철도전공 공기기업인 철도공단이 철도메카인 대전역에서 사회공헌을 통해 인근 소외계층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따뜻한 기업 이미지로서 지속적인 도움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혁신본부 임직원 20여명은 협약식 전날인 6월 19일 대전 대덕구 소재 '신탄진 KR 사랑의 숲'에서 잡목·잡초제거, 산책로 정비 및 주변 환경정화 등 환경지킴이 푸른숲 가꾸기 행사를 벌였다.

일하는 방식 개선 1,493억원 절감

— '12년도 상반기 혁신과제 53건 추진결과 —

공단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재무건전성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지난 1월 혁신과제 53건을 발굴하여 추진한 결과 약 1,493억 원의 재무성과를 달성하였다.

중전 터널단면 56.2㎡를 51.1㎡로 줄이고, 방음벽 지주간격 2m를 4m로 조정하며 이용수요와 열차운행계획을 감안하여 역·부본선 차량기지 등의 규모를 최적화 하는 등 경제적 설계·시공으로 약 1,391억 원을 절감하였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사 외 45개역 승강장 흙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의 민간투자 유치로 전용료 및 전력 매전 수익 등을 통해 약 102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경제적 설계기준과 고속화에 대응한 독자적 종합시험운영 절차를 마련하여, 철도의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특히 직원의 개인성향과 직무성향을 분석하여 반영하는 고도화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경영품질과 업무개선에도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 전 분야에 대해 이용자 편의를 먼저 배려하고 불필요한 국가 예산낭비 방지 및 수익창출을 위해 강력한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해남부선 '취봉과선교' 개통

— 라이온스 부산 세계대회 행사 지원 위해 조기 개통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 구간 중 부산시 기장군 소재 철도건설목적 입체화하는 취봉과선교를 6월 21일 개통하였다.

취봉과선교는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사업의 일환으로 영남본부에서 약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의 철도건설목적 횡단하는 기존 도로를 입체화하여 건설하는 2차선 도로교량이다.

영남본부는 취봉과선교를 당초 금년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6월 22일~26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라이온스클럽 세계대회에 교통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기 개통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라이온스 부산 세계대회에 참석하는 120개국 5만여명의 내·외국인 중 200여명이 숙소로 사용하게 될 부산은행 연수원의 출입로는 취봉과선교 중단부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 시정조치

— 하도급 대금 4.5억원 미지급한 풍림산업 공정위에 고발 —

공단은 127개 공사 현장에서 830건의 하도급 계약에 대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여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특별점검(5.29~6.1)을 시행, 16개 업체 19개 공사 현장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위반사례 중 어음할인료 미지급 2건,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2건, 하도급계약 미통보 1건, 재하도급 계약 1건, 표준계약서 미작성 2건 등 8개 업체 8건은 시정하였고,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3개 업체 3건은 6월말까지 지급토록 조치하였으며,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근로임금, 장비·자재대금을 미지급한 5개 업체 7건에 대하여는 원도급사에서 대위 변제 조치하도록 하고 이달 말까지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원도급자가 4억5천여만원을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한 풍림산업에 대해서는 5월 30일 공정위에 고발 조치하였다.

공단은 철도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과 근로임금 및 장비·자재 대금 미지급, 무리한 저가 낙찰 강요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시켜 동반성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불시에 특별 점검도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